

지방자치·종합

새누리공천위, 친이계 좌장 이재오 등 21곳 공천

공천위-비대위 충돌… 갈등 확산 조짐

이정현·문종안·정체하 등 1차 공천명단 확정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는 27일 친이(친이병학)계 좌장 역할을 해 왔던 이재오 의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 등 1차 공천자 21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공천위와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면 충돌,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공천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1차 공천자 명단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천위 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는 공천

위의 결정에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후 공천위가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하면 원안 그대로 확정된다.

정 위원장은 또 비대위와 갈등 양상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천에 대해 비대위에 일일이 묻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수 후보 신청 지역구 전체 32곳 중 21곳의 공천을 확정했다”며 “1차 공천자 명단 및 전략지역 선정 결과를 비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반의 표결로 21명 전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비대

위원회는 그간 ‘MB정부 실세 융퇴론’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현정부 들어 당 대표를 지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공천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원안대로 공천안을 확정했다.

이 의원 이외 이날 공천 확정자는 호남지역에서 이정현(광주 서구을), 문종안(나주·화순), 정체하(담양·곡성·구례), 최병서(전주 완산갑), 정운천(전주 완산을) 등이다. 또 ▲서울 김선동(도봉을)·권영진(노원을) ▲부산 서병수(해운대기장갑)·김세연(금정) ▲인천 흥일갑(남구갑)·윤상현(남구을)·이상권(계양을)·이학재(서구·강화갑) ▲경기 차명진(부천 소사)·전재희(광명을)·유정복(김포)·차동준(광명갑·광명갑 당협위원장) ▲강원 홍양철(홍천·횡성) ▲충북 윤진식(충주) ▲충남 김호연(천안을) 등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위는 또 이날 전략지역 22곳도 확정했다.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와 함께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가 포함됐다. 서초갑은 친박 핵심 이해우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지만 당내 ‘강남벨트’ 전략화 여론에 밀렸다.

부산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이 출마한 사상 및 북·강서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에서는 강세 지역인 성남 분당 갑·을, 안상수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의왕의 전략 지역에 포함됐다.

2008년 공천서 ‘친박 학살’ 주역으로 지목됐던 이방호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경남 사천과,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함남·울릉도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안군 역시 서삼석 군수의 중도사회로 치러지는 순천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궐선거 비용이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관리 비용 4억7000만원을 냈다. 2010년 6월 재선한 노관규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황주홍 군수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회한 강진군은 지난달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2억3317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고, 보궐비용은 4억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새누리 광주 서울·민주 낙동강 전선 최대 관심

■ 여야 총선 주요 격전지 대진표 윤곽

서울 강남을 정동영-김종훈 ‘FTA 대전’

여야의 4·11총선 후보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략지역들의 대진표가 짜이고 있다.

호남에서 1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광주 서울,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서울 종로, 아관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뛰어든 부산 사상구, 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민주당 속도를 내면서 전략지역들의 대진표가 짜이고 있다. 여성후보와 40대의 참신한 인재가 관록의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아ян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병우 전 민노당 사무처장을 내세워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광주 서울=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27일 당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 역사상 처음으로 호남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영진

면서 손씨에 대한 전략공천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당내에서는 비중이 떨어지는 인사를 내세워 패배시 충격을 극소화하는 데 물론 손씨가 승리할 경우 그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 장사’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자 새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당 각각에서는 6선의 흥사력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 북·강서=민주통합당은 이곳을 중심으로 ‘강남벨트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과 전현희 의원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당은 전략공천 지역 정도도 검토하고 있으나 27일에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 계의 중진인 허태열 의원이 4선에 도전할지, 새로운 후보가 나설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공천 위가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했다. 허 의원과 김도읍 변호사가 뛰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열린북한당 대표의 전략공천설도 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아관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27세의 여성인 손수조씨가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가 이날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 대향미를 찾

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장수 당대변인을 지낸 조윤선 의원과 ‘MB 맨’인 이동관 전 청와대 흥보수석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으나 몇몇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에 뛰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새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당 각각에서는 6선의 흥사력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강남=민주통합당은 이곳을 중심으로 ‘강남벨트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과 전현희 의원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당은 전략공천 지역 정도도 검토하고 있으나 27일에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 계의 중진인 허태열 의원이 4선에 도전할지, 새로운 후보가 나설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공천 위가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했다. 허 의원과 김도읍 변호사가 뛰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열린북한당 대표의 전략공천설도 들고 있다.

▲부산 사상구=아관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27세의 여성인 손수조씨가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가 이날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 대향미를 찾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강진·무안 보선비용 24억 달할 듯

“중도사회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해야” 목소리

총선 출마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회로 치러지는 순천시장과 강진군수, 무안군수 보궐선거 비용이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관리 비용 4억7000만원을 냈다. 2010년 6월 재선한 노관규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황주홍 군수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회한 강진군은 지난달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2억3317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고, 보궐비용은 4억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이와 관련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선거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폐해를 막으려면 중도사회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다문화가정 초청 투·개표 시연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27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유권자 초청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myna@kwangju.co.kr

北 방사포 개량 ‘주체100포’ 실전 배치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4·15) 생일을 기념해 240mm 방사포를 개량한 ‘주체100포’를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300mm 방사포탄을 수입, 평안도 지역 서해안에서 수년 간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김 주석 탄생 100주년인 4월15일 평양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군사パ레이드 때 ‘주체100포’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포는 기존 240mm 방사포의 사거리(60km)를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일부는 포병부대에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가운데 하나인 240mm 방사포는 12개 발사관인 ‘M-1985’와 22개 발사관

인 ‘M-1991’ 두 종류가 있다. ‘주체100포’는 M-1991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300mm 방사포탄을 수입, 평안도 지역 서해안에서 수년 간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김 주석 탄생 100주년인 4월15일 평양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군사パ레이드 때 ‘주체100포’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징수조사특위’의 송호창 위원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2009년에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음에도 다시 끌어내 수사하는 것은 노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노정연 관련 13억 송금 의혹

檢, 美 아파트 주인 곤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43)씨를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징수조사특위’의 송호창 위원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2009년에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음에도 다시 끌어내 수사하는 것은 노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적 지붕 및 옥상면적 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력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 1,130㎡(342평). 식당. 매점.

현재 성업 중. 매매가 9억 원.

Tel : 대표. 062-233-2222

직통 062-373-3939. HP : 010-3616-869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놓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출자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문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야마다 전화 주십시오★
FAX 02-1772-0111~02-2532
(광주광역시 동구 대동 소방서 1층)

062-952-5960, 010-8004-5900